

불교계 항일인사 재조명 탄력 받나

3년 남은 3·1운동 100주년, 불교계는 어떤 준비를...

1919년 기미년, 일제강점 아래서 민족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3·1운동의 100주년이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광복 70주년을 기해 2019년까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을 편찬할 것을 밝혔다. 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다. 30권 규모의 인명사전에는 1만3000여 명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성장과정·사상 및 이념·독립운동의 가치 등이 담길 예정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3·1절을 앞두고 잘 드러나지 않은 불교계 항일인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 활동상을 연구하는 일이 있지만 문도가 없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에게 대한 조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불교계에서 항일인사 재조명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대중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먼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3·1운동과 불교계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불교계의 항일운동 역할과 연구동향, 향후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토론회를 계기로 2년간 조사사업과 연구자 육성에 나선 뒤 지역별·인물별·분야별로 불교계 항일운동 역사를 정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역사에서 조명되지 못한 새로운 불교계 독립운동가 발굴도 포함된다. 이는 천도교가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발맞춰 불교계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겠다는 중단 차원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말부터 연구소에 항일운동

관련 사업을 당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발기인대회를 마친 항일 독립운동불교선양사업회(대표 조환기)는 올해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호국사찰 ‘고성 옥천사’에 대한 조명에 나선다. 옥천사는 일제강점기 경남지역 애국지사들의 주요 거점이었음에도 현충시설물로 지정됐다는 껍질만 있을 뿐 역사적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환기 대표는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옥천사 독립운동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후 스님을 비롯해 항일운동에 사력을 다한 재가불자 발굴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성월 스님의 독립운동가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 금정중 김화선 교사의 활동도 눈에 띈다. 1910년대 범어사 근대화에 일조한 오성월 스님은 일제 사찰령에 반대하는 임제종 운동을 주도하면서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화선 교사는 “개신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명은 잘 돼 있지만 불교는 많이 부족하다”며 “최근 오성월 스님 속가에서 자료를 받았다. 다른 스님들의 서훈을 진행했던 경험에 미뤄볼 때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만공선양회(회장 웅산)는 증빙자료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결사조직 만당에서 활동하며 비밀리에 독립군 자금조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우봉 스님에 대한 서훈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그간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면서 개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항일인사 재조명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룰 중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위원인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인물은 어려움이 없지만 관련 논문이 없거나 행적이 불분명한 인물에 대한 정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최근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발굴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술조사·전문연구자 육성 등 새로운 독립운동가 발굴 기대 증빙자료·연구자 부족은 여전히 서훈 총괄할 중심축 마련 절실

조환기 대표는 “불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양사업들은 개별사찰이나 문도회, 속가 친인척 등 각각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임자가 바뀌면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포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2015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공훈대상자는 총 1만4264명. 국가보훈처 분류는 연도와 공훈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인물의 종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롯이 해당 종교의 몫인 셈이다. 이제라도 역사서 및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면면이 되새겨야 진정한 애국이 실현되지 않을까.

조환기 대표는 “불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양사업들은 개별사찰이나 문도회, 속가 친인척 등 각각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임자가 바뀌면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포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2015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공훈대상자는 총 1만4264명. 국가보훈처 분류는 연도와 공훈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인물의 종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롯이 해당 종교의 몫인 셈이다. 이제라도 역사서 및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면면이 되새겨야 진정한 애국이 실현되지 않을까.



동안거 해제... 세상 속으로 2월 22일 동안거가 해제됐다. 조계종 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이번 동안거에는 조계종 102개 선원에 2186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들었다. 겨우내 정진한 수행자들은 이제 만행을 떠난다. 세상이라는 수행처에서 중생을 위한 교화행을 펼치기 위해서다. 만행에 나선 스님의 바람에는 대중들을 위한 법(法)이 담겨 있다. <중정·총림 방장 스님 법어 11편> 총주 석종사=노덕현 기자

아름다운 동행, 기부금 100억 원 '달성'

공익법인 82곳 중 불교계 유일... "지속적 관심 부탁"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공익기부재단 중 최초로 지난해 기부금 100억 원을 달성하며 전례 없는 성과를 이뤘다.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모인 기부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특히 이번 성과는 2008년 7월 설립 당시보다 10배 이상의 모금 성과를 이룬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행은 불교계 최초 공익기부재단으로 출범하며 그해 기부금 수입 약 10억 원을 모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행 측은 “불교계 사찰 및 스님, 불자들의 자비행이 모여 이뤄진 의미 있는 성과”라며 “모연된 기부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네팔지진 구호, 아프리카 식량 및 의료지원, 교육

목각 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이해는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해국 스님, 동안거 해제 맞아 깨달음 논쟁에 일침

“오히려 중생의 아픔을 달래려면 자기 자신의 번뇌망상부터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생제도도 좋지만 가장 근본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번뇌가 끊긴 고요함은 결코 이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2월 22일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대표적 수좌인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사진)이 깨달음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스님은 18일 총주 석종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깨달음 논쟁과 관련된 자신의 견해와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간화

선에 대한 치열한 열기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스님은 특히 깨달음이 자기 자신의 근본뿌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기에 이해를 통한 것은 참 깨달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스님은 “안거 전 깨달음의 이해를 가지고 많은 이들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비유해보자. 지금은 낮이다. 낮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낮과 밤이라는 분별이 생긴다. 이해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은 무념이다”고 말했다. 해국 스님은 13세에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 후 젊은 시절 10만 배 정진 후 손가락을 불태우는 소지공양을 결행해 불퇴전의 원력을 보여주었다. 또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간 숲일과 쌀만 먹는 생식을 하고 장좌불와를 했다. 이럼에도 스님은 자기 자신에게 흠족하지 못하며 수좌스님들의 각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스님은 “수좌들이 화두참구에 매진하면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앉았기도 하다. 잠과 싸우는 것 자체가 힘들다보니 중생 제도의 열의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간화선은 다른 수행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이 있기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간화선의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기 내면을 파고들어 찾아낸 해답은 자기 인생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 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 LED 전구

공단등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